

## 〈동물복지와 친환경축산〉

### 목차

1. 머리말
2. 동물복지와 친환경축산
  - 가.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동향
  - 나. 동물복지 국내외 동향
  - 다. 향후 전망
3. 맺음말

## 1. 머리말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에 8.1조원, 2005년에 11.8조원, 2009년에 16.5조원에 달하는 등 그 비중이 전체 농림생산액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육류소비량은 2000년에 32.2kg, 2009년에 36.8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축산업이 규모화되고 성장할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개방 확대, 국제 곡물가의 상승 및 유가의 상승 등은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등의 악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국내 축산농가의 한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축사환경을 포함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한-EU FTA에서 동물복지가 주요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국제교역에 있어 동물복지가 중요하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내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동물복지를 포함하는 친환경축산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관행의 축산에서 전환하기 위한 자본이나 이해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물복지와 친환경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2. 동물복지와 친환경축산

### 가.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동향

친환경농업은 생산자 입장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기초하여 자연정화와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수질이나 토양 등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노력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에서도 나타나는데 환경을 생각하고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2007년 세계 유기농 시장규모는 461억 달러에 달했으며, 국가별로 EU가 222억 달러, 미국이 211억 달러, 중국이 19.6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농업 R&D예산의 10%를 유기농업의 연구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유기농업추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정부주도로 유기식품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등 많은 국가가 자국의 유기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장을 돕고 있는데 이는 유기농업이 세계적으로 매년 2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 유기축산물



b) 유기축산 가공품

그림 1. 유기 축산물 및 가공품 (예)

국내의 친환경농업은 2005년 유기축산인증제가 도입된 후 무항생제, 유기축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1년 현재 쇠고기 24,456톤(유기축산물: 174톤, 무항생제축산물: 24,282톤), 돼지고기 21,594톤(유기축산물: 315톤, 무항생제축산물: 21,279톤), 닭고기 86,585톤(유기축산물: 112톤), 무항생제축산물: 86,473톤)로 총 501,611톤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주요 축종별 인증비율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까지 유기축산물의 생산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으나 여전히 유기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나. 동물복지 국내외 동향

동물복지는 동물도 「감각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보다 윤리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최소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동물과 사람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 학문 혹은 현대적 의미의 동물복지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EU가 「동물복지와 농산물무역」에 관한 제안서를 WTO 농산물협상 특별회의에 제출하면서 동물복지가 국제통상법 의제로 대두되었으며, 2005년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동물의 운송, 도축 및 살처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점차 국제적 규범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U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동물복지가 새로운 유형의 통상장벽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데 실제 한-EU FTA 협상에서 EU측에서 ‘한국 산란계의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동물복지가 이슈화되었다.

국외의 경우, 세계동물보호협회 등 동물복지관련 비정부 조직(NGO)들은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NGO들의 로비와 영향력으로 인하여 맥도날드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하는 농장의 계란과 고기를 구입하겠다고 공포하였고(2000년), 버거킹과 웬디스도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하겠다고 공포하였으며(2001년), KFC에서도 부화에서 도계까지 닭을 인도적으로 다루는 기준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2013년부터 산란계 케이지사육, 모돈의 스톨사육 및 송아지우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외면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소비자들이 축산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물복지가 재조명 되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좋은 예가 영국인데 200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 사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축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였다.



그림 2. 동물복지 인증마크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세를 감안하여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전 축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축산업에서 동물복지라는 것은 더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생산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환경개선을 통한 질병감소, 차별화를 통한 틈새시장 확보 등 축산업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또한 동물복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다. 향후 전망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은 관행의 축산에서부터 변화하는 농업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많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은 이제 시작단계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저변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직불금제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체제로 바뀌하고자 정책을 추진 중이며,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직불금제도를 준비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물복지와 친환경축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양축농가들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친환경축산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축산물이 생산되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축산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 예상된다.

### 3. 맺음말

분야를 막론하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이다. 축산도 이러한 시장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변의 정세이고 흐름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

는 점, 친환경농업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스트레스가 최종 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물복지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축산의 미래이다. 즉, 국내 축산업은 국제정세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발적 이미지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축산,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